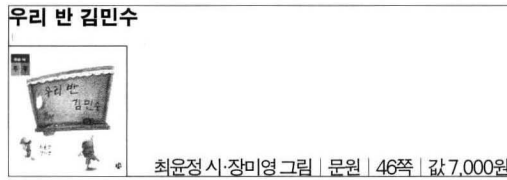


< 민수야! 안전한 민수 생각도 좀 해주라 >



최근 인터넷상에서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을 찾는 모임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동명이인들의 모임이지요. 가장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동호회 중 하나는 '김희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커뮤니티라고 하는데요, 회원수는 20여 명에 불과하지만 남녀노소 구애받지 않고 회원들은 모두 두터운 친분을 유지하며 서로의 고민까지 나누어줍니다. 영수, 소연이, 정숙이. 생각해 보면 학창시절 같은 반 친구들 중 같은 이름을 가진 친구들이 꼭 빠지지 않고 있었던 것 같아요. 최근 아이들 개성을 살린다는 뜻으로 특별한 한글 이름을 지어주는 경우가 많아졌지만 그래도 같은 이름을 가진 친구는 여전히 있을 겁니다.

'우리 반 김민수'라는 동시는 떠드는 아이로 지적받기 일쑤인 김민수에게 "너 좀 잘해라! 청소안 하고 장난친다고 선생님이 이름 부를 때마다 나까지 조마조마하잖아!"라고 투덜대는 김민수의 시입니다. 이름은 같지만 천방지축 떠들고 장난치기 좋아하는 민수와 얄전하고 소심한 민수의 대조적인 성격을 상상케 하는 재미있는 시이지요. 이 동시집은 이렇게 아이들 일상에 포착된 상황과 사물에 대한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스케치합니다.



친구들과 어깨동무하며 사진 찍던 기억, 만화책 삼매경에 빠진 채 돌멩이에 걸려 넘어졌던 기억 등 어른들에게는 '별 것 아닌' 일상이지만 아이들 세계에서는 '특별한 일'로 남은 사건들을 동시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30대 중반의 작가가 썼다는 게 믿겨지지 않을 만큼 동심의 순수함이 잘 묻어나는 시집입니다. "어디에 꼭 숨어 있다 나오는 건지 / 자꾸 내 마음 들통나게 하는 / 그런 놈 하나 있지. 입술이 바르르 코 끝이 찌임 / 그놈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신호야." 여기서 '그놈'이란 누구일까요? 궁금한 분들은 책을 펼쳐보세요.

< 집 짓는 과정 알려줍니다! >



"커서 뭐가 되고 싶냐?"는 질문에 "집짓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대답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텔레비전 모 프로그램에서 건축가들이 나와 어려운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고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장면을 여러 번 봤기 때문일까요? 이 책은 그렇게 건축에 관심을 갖고 있는 아이들에게 권하면 좋을 것입니다.



건축은 참 과학적인 학문입니다. 그것뿐인가요. 인간과 가장 밀접한 학문이면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학문이기도 하지요. 책을 집으로 따지자면 네 권의 책은 다른 어린이책보다 큰 집입니다. 면적이 237밀리미터에 높이가 310밀리미터나 되거든요. 또 면적이 큰 만큼 그 안에 들어간 정보도 다양합니다. 건축과 관련된 창의적인 책을 즐긴 발표한 데이비드 맥켈레이가 쓴 이 책은 중세의 성,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피라미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성당인 고딕성당, 도시가 완성되기까지의 역사까지 건축과 관련된 사실들을 진지하게 파고듭니다. 특히 재미있는 것은 건축 관련 정보를 단순히 학습 차원에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역사 슬라이드를 보듯 한 장면, 한 장면씩 흥미롭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중세의 성이 건축가, 일꾼들에 의해 어떤 과정으로 설계되고 완성됐는지 또 정치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상상의 영주를 내세워 소개하는 점도 재미있습니다. 어린이뿐 아니라 어른들까지도 한 권씩 소장하고 싶은 욕심을 갖게 만드는데요.



**엄마에겐 비밀이야**



히도반 헤네흐텐지움 | 이경혜 옮김 | 웅진닷컴 | 24쪽 | 값 10,000원

**아빠, 수염이 따가워요**

울리히 마스케 글 | 질케 브릭스 헨커 그림 | 김지연 옮김 |



어린이작가정신 | 32쪽 | 값 8,000원

아이들에게 엄마만큼 소중한 존재가 또 있을까요? 친구나 선생님, 형제도 있지만 아이들은 그 누구보다도 엄마에게 의지하고 사랑받길 원합니다. 이 책에 나오는 아기곰도 엄마 없이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애기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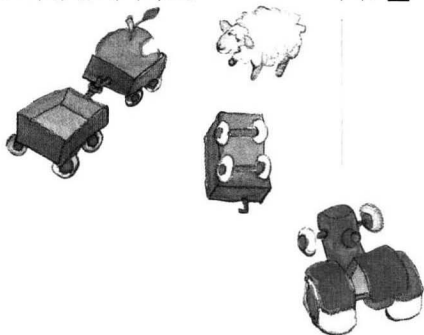
주인공 스노이와 엄마는 밤이나 낮이나 늘 함께 있지요. 얼음을 뚫고 낚시를 하는 엄마와 스노이 모습이 무척 행복해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스노이에게 특별한 비밀이 생깁니다. 엄마에게도 말 못할 비밀이지요. 얼마나 중요한 비밀인지 엄마 몰래 비밀장소까지 마련했습니다. 그곳으로 가기 위해 쉬가 마렵



다는 핑계까지 만드는 스노이. 엄마가 “쉬를 오래 하고 오네?”라고 말하면 응가도 조금 했

다고 거짓말까지 해가며 비밀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도대체 뭘까? 책장을 넘기는 우리를 역시 아기곰 스노이가 어떤 비밀을 감추고 있고 비밀장소에서 어떤 일을 꾸미는지 점점 궁금해지지요. 그러나 곧 이 비밀이 밝혀집니다.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던 스노이는 어느 날 엄마 앞에 엄청난 선물을 내놓지요. 선물은 다름 아닌 엄마와 자신을 닮은 눈사람입니다. 비밀장소에서 눈사람을 만들었던 스노이. 눈사람과 함께 엄마를 향한 마음까지 선물한 스노이는 엄마 곁에서 평화로운 꿈을 꾸니다. 엄마와 비밀을 나눈 후 엄마를 꼭 껴안고 잠든 스노이 모습이 정말 귀엽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종이를 그냥 넘기지 말고 아기곰을 손으로 쓰다듬어 보세요. 부드러운 아기곰을 직접 만지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될 테니까요.




《엄마에겐 비밀이야》가 엄마를 너무 사랑하는 아기곰의 이야기라면 《아빠, 수염이 따가워요》는 아이를 너무나 사랑하는 아빠의 이야기입니다.

온 몸에 가시가 있는 고슴도치는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도 사랑하는 사람이 가시에 찔릴까 두려워 쉽게 표현도 못하겠어요. 반가우먼 악수하고, 헤어질 때는 작별의 포옹도 하고, 즐거울 때는 함께 손뼉을 치는 우리와는 다르겠지요. 이 책에 나오는 고슴도치 아빠는 다른 아빠들처럼 집에



오면 아이와 뽀뽀하고 놀고 싶어합니다. 사랑의 표현이지요. 그렇지만 아이는 아빠의 수염이 따가워 보여 도망치기 바쁩니다. 어린이 여러분들도 이런 기억을 갖고 있을 겁니다. 퇴근해 집으로 돌아온 아빠가 “우리 아들! 오늘 하루 잘 보냈니?”라며 볼에 얼굴을 댈 때 아빠의 까칠까칠한 턱이 따가워 도망쳤던 기억 말이지요. 결국 고슴도치 아빠는 다른 방법으로 사랑을 표현합니다. 꽃이나 버찌도 꺾어다 주고, 달팽이로 공기놀이를 하자고 권유도 해보고, 노래도 불러보라고 하지요. 그러나 아이는 꽃도 버찌도 따갑게 느껴지고 노래는 깔끄럽다고 불평합니다. 결국 아이의 매정함에 눈물을 글썽이는 아빠. 아기 고슴도치는 이런 아빠의 눈물을 보며 그제서야 아빠를 이해합니다.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예쁘다고 쓰다듬는 걸 싫어하는 어린이들이 있지요. 노인들에게서 나는 냄새가 싫다고 말하면서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어른들의 행동을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어른들도 어린이처럼 상처받을 수 있답니다.  김청연 기자

